

지역 매 아 리

부안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제269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 부안군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 간 부안읍 관광 일대에서 열리는 제10회 남의 뽕 축제 장 안전점검을 펼치고 있다.

이날 부안군청을 비롯하여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 행사장에서 벌여질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려고 추진되었다.

행사장 입구부터 점검활동을 시작한 점검반은 개막식, 폐막식 행사가 진행되는 무대주변을 시작으로 아이들과 같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 장 주변 안전 점검도 점검했다.

도 눈에 생애 관찰 및 사육체험, 비즈공예, 안돌 꽃, 압화 체험 등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곳은 무대위를 피해 많은 피서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세심한 점검활동을 벌였다.

점검 도중에 발견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군은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기다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갯벌축제' 성료

축제장 환경의 쾌적함·지역성 강화로 호평

찌는 듯한 여름, 탁 트인 갯벌과 바다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는 '풍천갯벌'과 함께하는 2018 고창갯벌축제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삼원면 만돌갯벌체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고창갯벌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고창군, 수협중앙회, 고창수협, (사)고창풍천갯벌어업협회, (사)고창한수연, 만월어촌계, 고창군수협어촌계장협의회 자율관리공동체, 한수원(주)한빛원 지역본부가 후원했다.

3일 열린 기념식은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과 재경·재정·재광고창군민회 등 재외군민을 비롯해 관광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축제 관계자들은 매일 지속되는 폭염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3달여간 많은 공을 들였다.

행사장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에어컨 가동 시설을 만들었으며, 어린이 물놀이 공간 등 주변 시설도 조성하여 무더위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여름철 대표보양식 고창산 장어를 시중가보다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여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번 축제는 기록적인 폭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예년보다 더 알차고, 축제장 환경의 쾌적함과 지역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문객들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청정 고창갯벌에서 갯벌버스도 타고, 88한 풍천갯벌어업협회, 갯벌 속에 숨겨진 환금찾기, 동쪽 빨리까기기를 비롯해 바지락개기체험, 관광객 참여만당, 즉석노래방 등 다채롭게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즐겼다.

특히 에어바운스 물놀이장과 수상경기 체험장, 열음 위 오레버티기, 이글루 만화영화사영 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존은 무더위를 잊을 수

있어 큰 인기를 얻었다.

축제가 열리는 지역의 어촌계에서는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이 중심이 되어 바지락과 장어 특화요리 등 먹거리를 선보여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

또한 해남이 광장에 마련된 전대에서 바라보는 서해안 일몰의 장관과 바람공원 소나무 숲 사이 산책로 등은 방문객들이 축제 기간 이후에도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호응을 얻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기념식에서 "최고 품질의 고창 수산물과 어촌의 문화·생태·경관자원, 그리고 다양한 갯벌체험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잘 사는 어촌을 만들고, 방문객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주는 '고창갯벌축제'는 매년 프로그램의 내실을 더해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사랑받고 있다"며 "천하제일의 농생명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고창 농수축산물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민들에게 힘을 보태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폭염 속에서도 아로니아 재배농가들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아로니아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읍은 지금 '아로니아' 수확의 계절

TV홈쇼핑·SNS 등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

폭염 속에 정읍 아로니아가 제철을 맞았다. 시는 "폭염 속에서도 아로니아 재배농가들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아로니아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로니아는 '슈퍼푸드'로 불린다.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 함유량이 타 작목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몸속 활성산소를 감소시킴으로써 항암효과와 시력 개선, 면역력 강화 등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정읍산 아로니아는 잘 익은 열매만을 선별 수확해 고품질의 낮은 맛과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시는 고품질의 아로니아 생산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친환경과 GAP인증, 올바른 전정 등의 다양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물론 TV홈쇼핑과 SNS 통합마케팅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로니아 유통구조 개선과 재배기술 교육, 가공 상품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정읍 아로니아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로니아 구입은 정읍시 온라인 농축산물 쇼핑몰인 단풍이민쇼핑몰(www.danpoongmall.com, ☎063.532-4345)을 이용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초등생 대상 안전교육

정읍시는 지난 2일과 3일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전북119안전체험관(임실군 소재)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연기 탈출, 지진·태풍과 교통안전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한 익수사고 체험과 선박 탈출체험 등도 가졌다.

학생들은 "무더운 날씨에 물놀이를 즐기면서 안전체험까지 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실제처럼 꾸며진 체험관에서 체험을 하니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 훨씬 실감 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재난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팜팜시골버스' 타고 고창으로

매주 주말 관광 명소·농촌체험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창조지역사업 '천년의 보물찾기 팜팜스테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형 관광시터 투어버스인 '팜팜시골버스'를 본격 운행한다.

'고창 팜팜시골버스 투어'는 지난 4일 첫 운행을 시작하며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일 각 1회 고창읍성, 선운사, 운곡습지 등 우수 관광지는 물론

고창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행사, 팜팜스테이션 및 팜팜농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볼거리, 농촌체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팜팜시골버스는 오전 9시30분 정읍역에서 출발, 고창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오후 7시까지 정해진 코스로 운행하며, 요금은 2만원이다.

신청 가능인원은 최대 40명이며 (주)테마파크 여행사(02-735-8142)에 사전 예약 하면 된다.

팜팜시골버스는 본격 운행에 앞서

지난 4월부터 7월 까지 모니터링 투어를 4회 추진하여 전화 매킨을 기록하고 참가자들이 고창 관광명소와 팜팜농가에 재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단장 김수남)은 "팜팜시골버스를 통해 본격적인 여름 성수를 맞아 여름휴가계획을 준비하는 관광객들의 여행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관광객은 다채로운 체험과 특색 있는 체험형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TBN전주교통방송 출연... 7기 시정 운영 계획 밝혀

유진섭 정읍시장이 도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입장을 과시하며 민선 7기 시정 목표와 주요 사업 계획 등을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2일 TBN 전주교통방송(FM 102.5 MHz, 이하 TBN전주방송)의 'TBN 전북매거진(매일 16시~18시)'에 출연, 차분한 목소리로 시정현안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입장을 자랑했다.

유 시장은 이날 TBN전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신혜진 아나운서와 함께 오후

5시 5분부터 25분여 간 생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을 통해 유 시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관련,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정읍시민을 비롯한 청취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지향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의 조화로 불평등과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와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가 잘살고, 지속가능한 행복한 정읍의 미래를 열어가는 취지에서 민선 7기 시정목표를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 아나운서는 "시정목표를 실현할 5대 시정방침을 알고 있다"며 ▲골목 있는 안전행복도시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스타트한 농·생명도시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서 청문실, 피해자 지원 활동 정착 순회 교육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피해자보호는 경찰의 기본 임무라는 인식전환과 업무이해도 증진을 위해 분서 및 지·파출소를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기능의 정책을 피해자 보호 관점으로 세가지 테마별로 나누고 피해자 보호관교육, 접촉부서 대상 실무교육, 전직인 대상 사이버교육 등 실시로 인권경찰로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조사 팀장 전영기 경감은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능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재 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2조의 2에 명시된 법외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해 부서별 책임자가 지정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또한 부가적 업무가 아닌 경찰 활동 전반에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인 업무라 인식으로 전환 각 기능별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보호관련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부안강산뽕주) featuring product images,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